

## 5강 동아시아의 선사문화

### 1. 학습목표, 학습내용 및 핵심 포인트

[학습내용 및 핵심포인트]

1. 동아시아에서의 신석기혁명
2. 동아시아에서의 다양한 신석기문화와 토기

[학습목표]

1. 동아시아 구석기인들의 삶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신석기혁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신석기시대에 만들어진 다양한 토기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4.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진 청동기 도구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2. 사례

독특한 모양의 세 토기는 각각 중국의 양사오문화의 채도,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 일본 조몬시대 토기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사 시대 사람들이 토기를 만든 것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토기는 저장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듯하다. 사실 신석기 사람들은 토기를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을 담거나, 곡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끝이 뾰족한 것은 강가나 바닷가의 모래에 잘 박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후기로 갈수록 거주지가 구릉지대로 옮겨가게 되자 끝이 평평하게 바뀌었다. 토기를 통해 신석기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곡식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초기에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살다가 점차 구릉지대로 옮겨가 생활하였음도 알 수 있다.

##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 1) 구석기인들의 삶

동아시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20만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인류이다. 중국의 시허우두, 한국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연천 전곡리 등에 그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지금부터 약 4만전 전에는 현생 인류가 출현하여 동아시아의 후기 구석기 문화를 일궜다. 이들이 남긴 유적은 중국의 거의 전 지역과 한국의 공주 석장리, 청원군 일대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다. 일본은 그 때까지도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어 대륙과 시베리아로부터 구석기문화가 들어왔으며, 베트남에서도 푸 토의 썸 비에서 현생 인류가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채집, 수렵, 어로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뿔석기를 만들어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고 짐승의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고 집을 짓는데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사냥감인 짐승을 따라 이동하였으므로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이들은 동굴 벽이나 바위 등에 들소나 사슴 등의 모습을 그려 넣어 사냥의 성공을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 2) 신석기 혁명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가던 약 12,000년 전을 전후하여 동다마이디 바위그림(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후기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림문자와 각종 도형, 동물 등이 일본 열도가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추운 지방에 살8,000여 점 이상 표현되어 있다.

대형 동물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생태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 무렵부터 간석기가 사용되고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강이 바라보이는 구릉의 비옥한 땅에 밀, 보리, 쌀, 조, 수수, 콩 등의 씨를 부러 농사를 지었다. 돌과 나무로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수확한 곡물을 보관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제사를 위한 토기도 특별히 제작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잡아 온 야생 동물을 기르면서 목축을 시작하였는데 양, 소, 돼지, 염소 등이 이 무렵부터 키우기 시작한 가축이다. 한편, 기후나 토양이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초원 지역에서는 가축을 몰고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유목이 발달하였다.

식량 생산으로 삶이 안정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수명이 길어지고 씨족의 구성원이 늘어났다. 옷감을 짜고 움집을 만들고, 토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향상되어 점차 씨족 구성원들 사이에 분업도 이루어졌다. 분업화에 따라 사유 재산이 생기고, 씨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약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책임지고 집행할 씨족장의 권한도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 2. 동아시아의 다양한 신석기문화

동아시아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큰 강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기원과 계통이 다른 여러 문화가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토기를 중심으로 이 문화들을 구분한다.

황하 유역에서는 중류 유역에서 채도를 중심으로 한 양사오 문화가, 하류 유역에서는 회도와 흑도를 중심으로 한 다윈커우 문화가 발전하였다. 발농사를 위주로 발전한 두 문화는 룡산 문화로 이어졌고, 이후 청동기문화로 발전하여 이 지역에서 최초로 국가가 나타나게 된다.

양쯔 강 하류 유역에서는 허무두 문화가 발전하였는데 다양한 형태의 간석기와 나무로 만든 농기구와 뼈씨를 통해 일찍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토기는 흑도, 홍도, 홍회도 등이 만들어졌다.

랴오허 강 유역에서도 이른 시기의 발농사 유적지와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이 지역의 신석기문화를 대표하는 홍산 문화에서는 용을 닮은 옥기와 비교적 낮은 온도로 구워낸 토기, 다양한 형태의 돌보습, 돌쟁기, 돌호미 등이 발견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시대 초기에 이른 민무늬토기와 덧무늬 토기가 나타났다. 이른 민무늬토기는 제주도 고산리 유적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덧무늬토기는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분포하는데, 시베리아와 헤이룽 강 중류, 연해주 남부, 일본의 토기 문화와 서로 연결된다. 이후 대표적인 신석기 토기인 빗살무늬토기가 나타났다. 이 토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일본 열도에서는 신석기 초기부터 조몬 시대가 시작되었다. 조몬이란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를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조몬 사람들은 주로 강가나 해변에 움집을 만들어 살았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농경보다는 주로 사냥, 어로,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베트남 지역의 신석기 문화는 호아 빈 문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일부 초보 수준의 간석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본격적인 신석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갈돌을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었고 돌림판을 이용하여 정교한 문양을 새긴 토기가 만들어졌다.

## 3. 청동기문화의 발전

신석기 문화는 기원전 3000년을 전후하여 주변의 문화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점차 그 문화권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황하 유역에서는 양사오 문화 등을 아울러 룡산 문화가 발전하였고, 양쯔 강 유역과 랴오허 강 유역에서도 여러 신석기문화를 아우르는 광역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양쯔 강 유역과 랴오허 강 유역의 광역 문화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쇠퇴한 반면, 황하 유역의 룡산 문화권은 말기에 이르러 청동기를 만들고 도성을 세우는 등, 초기 국가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전승에 의하면 황하의 치수에 성공한 우 임금이 이곳에서 하라고 하는 최초의 국가를 세웠다고 한다. 고고학적으로도 기원전 2000년경이 되면 황하 중류 지역에서 초기 국가가 등장하고, 이들이 사용한 청동기가 각 지역으로 전파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청동기가 발견된 것은 기원전 3000년경에 비단길 상에서 발달한 마자야오 문화에서이다.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초기 국가가 등장한 곳이 황하 중류 지역이었던 것은, 그 지역이 청동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동기가 전해지는 경로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 무렵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고, 만주 지역은 이보다 앞섰다. 한반도와 만주의 청동기 유물로는 칼, 화살촉, 방패와 같은 무기류와 거울, 방울, 팔찌 같은 장신구가 많다. 청동기시대에도 농기구 등 생활 도구는 주로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다. 곡식의 이삭을 따는 반달 돌칼이나 자루를 달 수 있도록 홈을 판 홈자귀 같이 다양한 석기가 등장하였다. 토기는 빗살무늬토기를 대신하여 민무늬토기가 주로 만들어졌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일본 열도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양식인 고인돌이 광범위하게 출토된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서남부 일본에 한반도로부터 청동기와 철기 및 벼농사 기술이 전래되어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 야요이 인들도 조몬 인처럼 움집에서 거주하였는데, 초기에는 나무와 간석기를 사용하여 논을 경작하였지만 점차 쇠를 단 농기구도 보급되었다. 청동기가 주로 제기와 장신구로 활용된 반면 철기는 공구와 무기 등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 옷감을 짜 의복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2,000년 경에 시작되어 동 썬 문화에서 꽃을 피웠다. 동 썬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은 태양과 새, 머리가 새 모양인 사람 등이 정교하게 새겨진 청동제 북이다. 또한, 벼농사는 나무괭이를 사용하던 데에서 가축의 힘과 금속으로 만든 쟁기를 사용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 4. 퀴즈

1. 신석기혁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경의 시작
- ② 목축의 시작
- ③ 토기의 제작
- ④ 고인돌의 제작

정답 ④ 고인돌의 제작

동아시아의 고인돌은 한반도 외에도 중국의 산둥, 랴오닝 및 일본의 큐슈에서도 출토되지만 수량에서 미미하다. 고인돌은 주로 청동기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까지 제작되었다.

2. 신석기시대에 제작된 토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양사오의 채도
- ②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
- ③ 한반도의 덧무늬토기
- ④ 일본의 야요이 토기

정답 ④ 일본의 야요이 토기

일본의 야요이 문화는 기원전 3세기경에 한반도로부터 벼농사와 함께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전래되어 성립하였다. 따라서 야요이 토기는 신석기시대의 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동아시아에서 고대 국가가 나타났다는 증거로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답하십시오.

정답 : 무기나 의례용 청동기 출토, 성벽을 가진 도성 유적 발견, 고인돌의 출토

## 5. 학습정리

이번 장에서 이해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채집, 수렵, 어로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들은 뿔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가죽옷을 입고 사냥감인 짐승을 따라 이동하면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인류의 간석기와 토기를 만들면서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 동아시아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황하, 양쯔 강, 랴오허 강 등 큰 강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기원과 계통이 다른 여러 문화가 나타났는데, 보통 토기를 중심으로 이 문화들을 구분한다.
- 일본 열도에서는 신석기 초기부터 조몬 시대가 시작되었다. 조몬 사람들은 주로 강가나 해변에 움집을 만들어 살았으며 농경보다는 주로 사냥, 어로,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 황하 유역의 룡산 문화권은 말기에 이르러 청동기를 만들고 도성을 세우는 등, 초기 국가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전승에 의하면 황하의 치수에 성공한 우 임금이 이곳에서 하라는 최초의 국가를 세웠다고 한다.